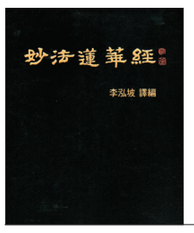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5~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법화경, 부처님이 일생 교화한 결실



묘법연화경
홍파 스님 지음
도서출판 범성 펴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 이 경전을 수지(受持) 독송(讀誦)하면 공덕이 크고 넓어 우주 법계의 한량없는 가피가 저절로 찾아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작은 부처님으로 지칭되는 천태 지의 대사는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분류하는 오시교판(五時教判)서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참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경전이라고 칭하였다.

한역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사나굴다와 달마급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 등이 있다. 이 중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이 명역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대승불교권에서 〈법화경〉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묘법연화경〉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서 유통되는 〈법화경〉의 다수는 구마라집의 저본(底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영산 홍파 스님이 번역서를 펴냈다. 홍파 스님은 "법화경과 함께 40여년의 수행 생활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내게는 소중한 경전"이라며 "신라의 원효대사를 비롯해 매월당 김시습에 이르기까지 〈묘법연화경〉에 대한 국내외 해설서를 참고해 현대적 감각에 맞는 해설과 함께 각 품 끝나는 말미에 이해하기 쉽게 주석을 붙여 놓았다"고 책 출간 취지와 구성을 설명했다.

이어 홍파 스님은 동국대 역경원장을 지낸 운허 스님과 소설가 춘원 이광수 선생 사이의 일화도 소개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전쟁 직전 운허 스님이 당신의 6촌 지간인 춘원 선생에게 불교문학의 백미인 〈법화경〉을 누구나 읽기 쉽게 번역해 보라고 권유 했었다"며 "하지만 한국전쟁때 춘원 선생께서 납북되고 춘원의 집에 찾아가 서고를 뒤졌으나 〈법화경〉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은게 생각 난다"고 회고 했다. 또한 스님은 "만일 그때 춘원 선생께서 〈법화경〉을 번역했다면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서 〈법화경〉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러므로 누구나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법화경〉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제시돼 있다. 또한 절묘한 방편과 비유를 표현하고 있어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어느 경전보다 신앙의 경전, 독송의 경전, 찬불(讚佛)문학의 경전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을 설명하고 있는 홍파 스님.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아
대승불교서 최고 경전으로 꼽혀
제작기간 2년, 1200페이지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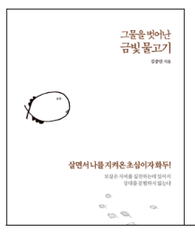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14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제2 방편품, 후반부에서는 제16 여래수량품을 중요한 품으로 꼽는다. 방편품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성문 · 연각 · 보살 삼승이 일불승, 곧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삼승을 비롯해 깨달음의 여러 경지는 그 구분이 없으며 본질은 하나로서 모두 같음을 나타낸다. 여래수량품에서는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설하는데, 구원실성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다는 뜻이다. 이는 부처님의 열반은 중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참된 깨달음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법화경〉에서 이 차원을 다룬 이유는 모든 이에게 부처와 같은 경지에 오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법화경〉이 많은 경전 가운데 널리 독송되고 주석서가 많이 쓰인 이유는, 첫째, 문장이 미려(美麗)하고 종교적인 내용까지도 풍성하여 불자를 감동시키는 구절이 많으며, 둘째, 독송 시 리듬이 경쾌하여 독송자로 하여금 종교적인 법열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화경〉에서는 이 경전을 수지(受持), 독(讀), 송(誦), 서사(書寫), 해설(解說)하게 되면 크나큰 공덕이 있다고 설한다. 경전 그대로가 진리이며 법신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1200페이지 분량 한 권으로 구성된 홍파 스님의 〈묘법연화경〉은 무엇보다 독송이나 읽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큰 특징이다. 번역과 제작 기간만 2년이 걸렸다는 홍파 스님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교화하며 내린 결론이자 그 결실이 바로 이 〈법화경〉인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만한 경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파 스님은 "불가사의한 진리를 말씀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서사하거나 강설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루게 된다. 불교 신행을 하고 싶은 불자나 혹은 불교적인 복덕을 바라는 이들은 이 경전을 가까이 두고서 독송해 보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음종은 11월 24일 종로 낙산묘각사서 한글 묘법연화경 봉정식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깨달음은 向上一路의 과정이자 목표



그물을 벗어난 금빛물고기
김종만 지음
시간여행 펴냄 / 1만5천원

선사들 대표 법거량, 칼럼 등
한국불교에 필요한 주제 묶어
인간 행복 · 자유에 대한 산문

신간 〈그물을 벗어난 금빛물고기〉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모색하는 산문집이다.

저자는 32년째 불교 언론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기사와 논문, 칼럼, 연재 등 다양한 부분의 많은 글을 썼다. 이번 책은 저자가 회갑을 맞아 그간의 글들을 정리해 묶은 것이다. 거칠고 비판적인 원고는 제쳐두고 현재의 한국불교에 필요한 주제의 글들을 추렸다.

책은 한국불교의 핵심인 선(善)과 교(敎)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선이라고 해서 과정이 다르거나 교라고 해서 방편이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다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편을 내세우는 선이라고 해서 궁극엔 교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의 글은 선학적인 면에서든 교학적인 면에서든 시종일관 이러한 점을 견지하며 자신의 논지(論旨)를 전개하고 있다.

제1장 '공안으로 세상읽기'는 〈벽암록〉, 〈무문관〉, 〈종용록〉 등 3대 공안집에 나오는 대표적인 법거량을 소개하고 풀이한 일종의 해설 컬럼이다. 공안을 단순히 화두(話頭)로 치부해, 현학적(玄學的)으로 접근하거나 수수께끼 식으로 풀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세상과의 교감과 소통을 위한 소재로 활용했다. 총 17편의 '공안으로 세상 읽기'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중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과거 선사들의 법거량에서 그 교훈과 메시지를 찾고 있다.

제2장 '법고를 두드리며'에서는 그간 저자가 불교 언론에 발표했던 글들을 추려 모은 칼럼이다. 공안이 출가 수행자의 치열한 구법의 현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칼럼들은 세속에 던지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는 〈불교평론〉 2002년 봄호에 '기복 불교 옹호론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글이다. 한국불교의 현 모습은 기복신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복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은 2천만 불교도를 내세운다 해도, 진정한 불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할 한국불교의 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부처님의 근본 교리에 입각한 정법불교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다시 게재하게 됐다고 한다.

부록으로 실린 '인권문제의 불교적 대안'은 현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관련 불교의 교리적 입장에서 살펴본 글이다.

이 책의 전반은 이렇듯 인간의 행복과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깨달음이란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과정이며 목표다. 향상일로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정진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다. 부처님은 그래서 "한 시도 쉼 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는 유훈(遺訓)을 남기셨다. 이 책은 이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안내서이다.

저자 김종만은 불교신문 취재 · 편집차장을 거쳐 주간불교와 법보신문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주불교 편집국장, 월간 붓다 편집인, 불교저널 & 월간선원 편집장을 지냈다. 10 · 27법난 명예회복위원회 명예회복 추진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으로 있으며 (사)평화로운세상만들기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등이 있으며, 저서로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선 시 읽기〉가 있다.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